

동부하이텍, 반도체 10년만에 흑자

1/4분기 영업이익 67억원 ... 국내 시스템반도체 발전 가능성 제시

동부하이텍이 2001년 시스템반도체를 상업 생산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동부하이텍(대표 박용인)은 2011년 1/4분기에 매출액 1473억원, 영업이익 67억원을 기록했다고 5월16일 발표했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미국과 일본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해왔고, 국내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분야”라며 “10년만의 흑자 달성으로 메모리반도체 위주의 한국 반도체산업에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진행한 재무구조 개선 사업을 통해 차입금을 2조4000억원에서 2010년 7000억원대로 줄인 것도 흑자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동부하이텍은 앞으로 고전압·저전력 중심의 아날로그 반도체와 의료기기·자동차에 사용하는 산업용 센서, 통신용 고주파반도체 등 복합신호소자 등 3대 기술에 개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16>